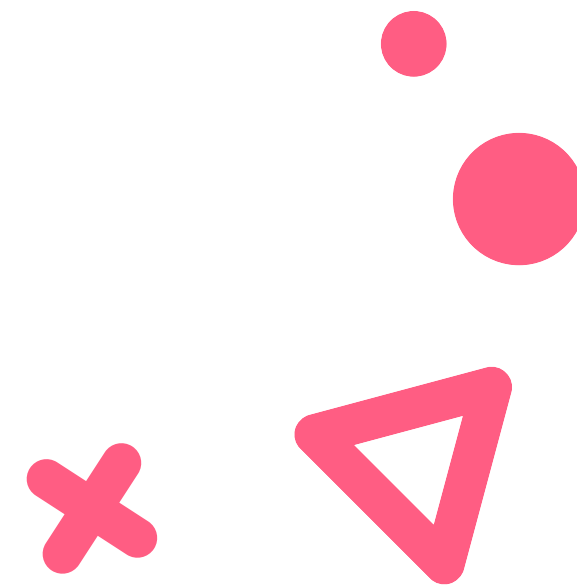




라온아띠 22기
서울 지역 TEAMUM

1월 활동 보고



목차

◁ 토크콘서트
기획 및 진행

● 움툰 연재

▶ 캄보디아
해외교류

○ 영상 제작

◇ 활동 평가 및 소감

01. 토크콘서트 기획 및 진행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



움의 세 번째 프로젝트

지구마을방법대 팀과

공동 주최

"환경" 토크콘서트

환경인플루언서 &

지구환경연구소 소장

'홍다경'님

더 피커 대표 '송경호'님

> 행사 전체 타임라인 및 준비사항 기획 (기획팀)

> 강연자 섭외 및 장소 대관 (섭외팀)

> 행사 전반 예산 관리 (총무팀)

> 티켓, 굿즈 디자인 및 카드뉴스 게시 (홍보팀)

> 학교 커뮤니티, 개인 SNS 통한 홍보 활동 (ALL)



RoomAtt'i 'S TALK CONCERT

Jan 30th 2023

인사라온자 2층, 서울 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9번 31

GATES OPEN 5PM

INSA | MON DAY
TICKET | \$ FREE

TICKET: 624

[참여해주신 관객분께 받은 메시지]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참여한 사람입니다!

유익한 행사 기획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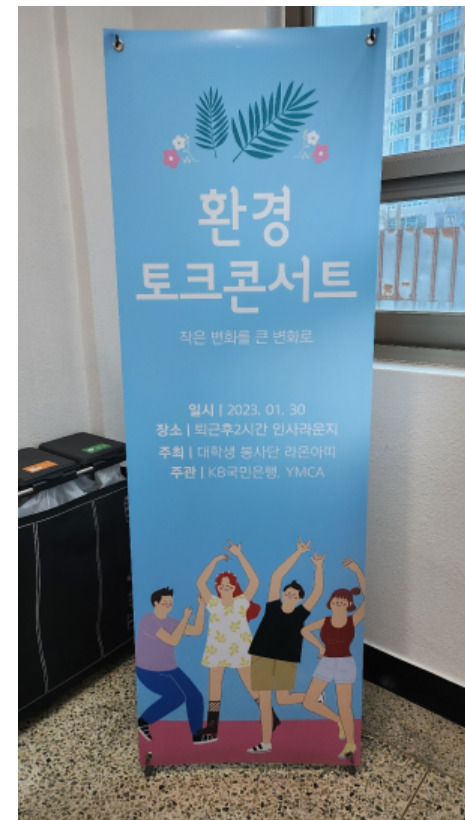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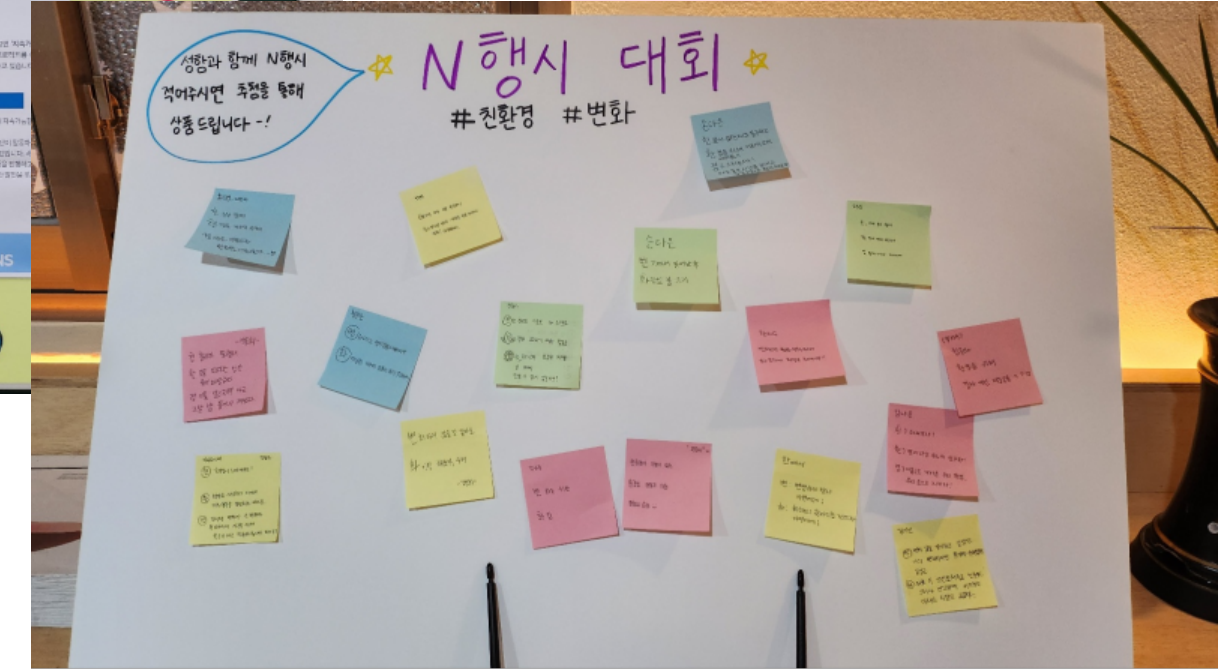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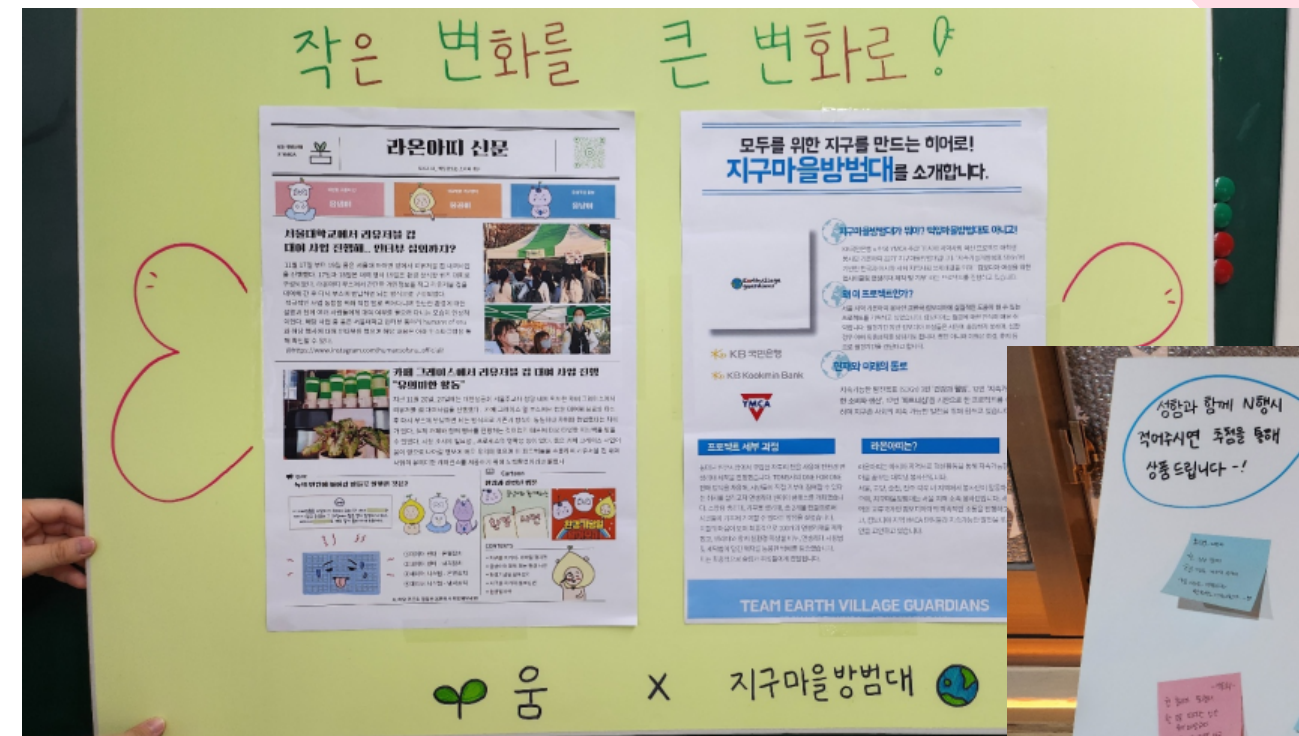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가지고 있던 환경 문제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되었고,

너무 막연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다가도 허탈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의미한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흑시... 비건빵도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구매하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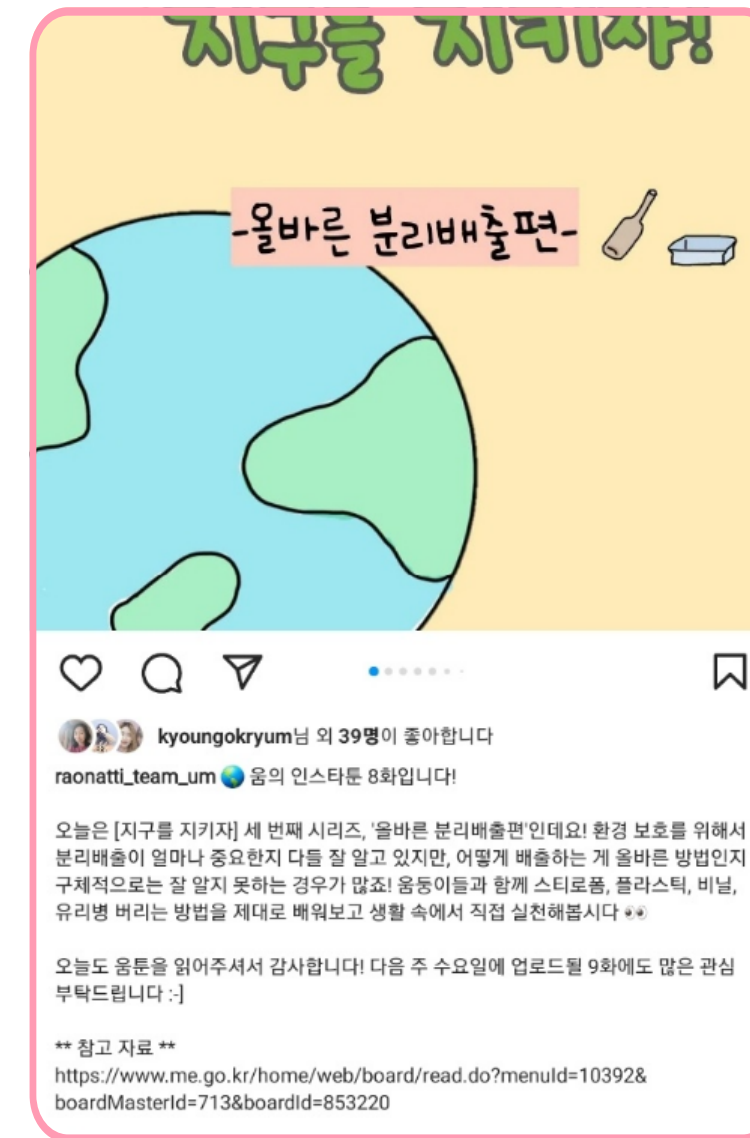
02. 움툰 연재

움툰 7화, 8화 연재

7화. SDGs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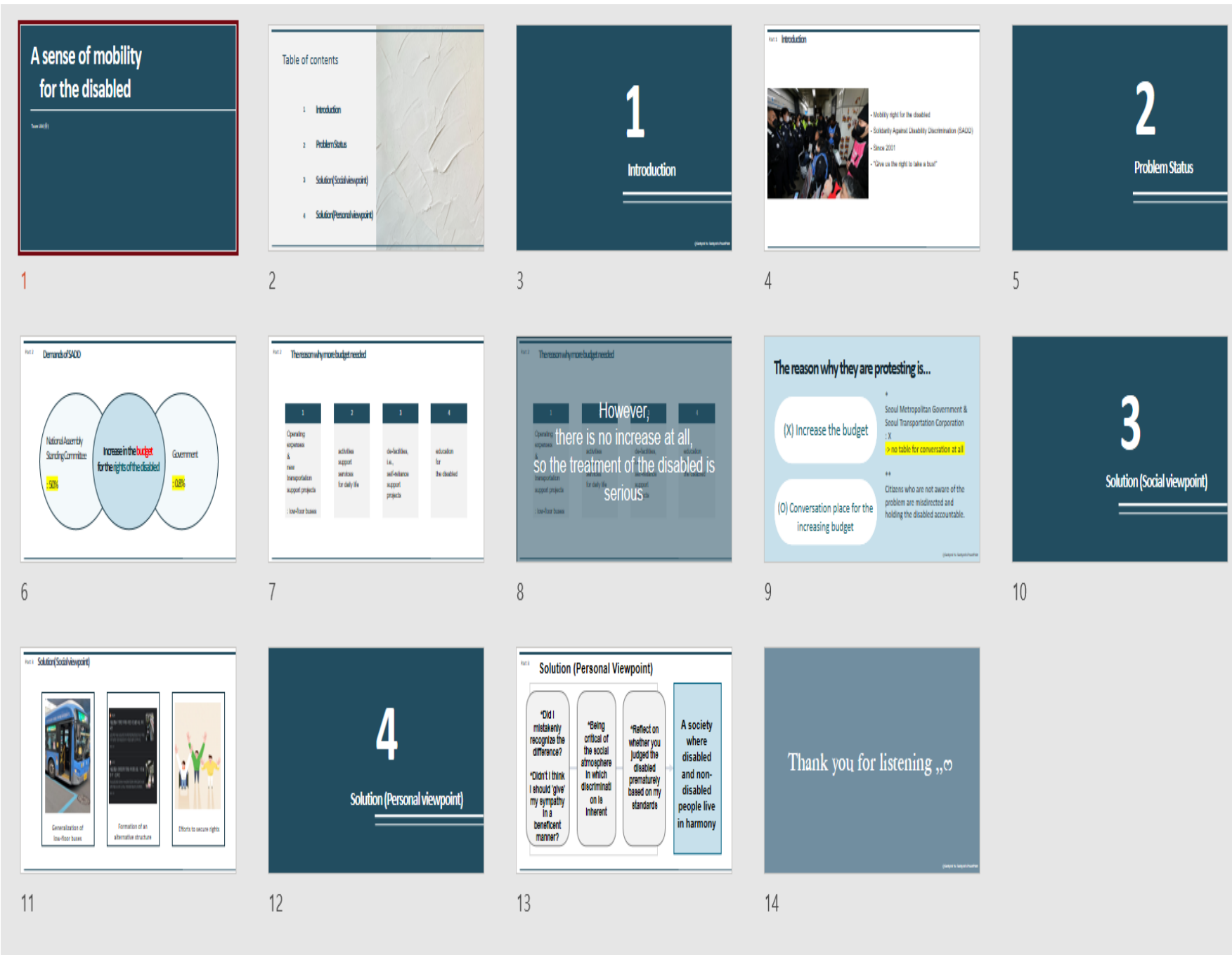


8화. 지구를 지키자! - 올바른 분리배출편-



03. 캄보디아 해외 교류

23.01.06. PM 6:30



[주제]
한국과 캄보디아의 사회 이슈 팀별 소개 후 논찬

[옴의 발표]
"장애인 이동권"

- 문제 소개
- 현황
-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법
-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법

04. 영상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영상 제작



리유저블컵 대여사업, 카페 그레이스 | Reusable cup rent day, cafe grace

라운아띠움



카페 그레이스 활동 브이로그

<https://youtu.be/dSyAgTScpx0>

**** 움의 지난 활동들을 담은 영상들이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예정! ****

[활동 평가] 1월에는 서울 지역 팀인 지구마을방법대와 함께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을 주제로 환경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기획팀, 섭외팀, 홍보팀, 총무팀으로 나누어 환경 전문가분들께 기획안을 보내고 장소를 선정하고 티켓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며 환경 콘서트를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처음 해보는 활동이었지만 전 활동들에 비해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거 같다. 콘서트에 참여해본 경험도 드문데 콘서트를 기획하는 일이라니! 처음 해본 프로젝트였지만 굉장히 설렘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다. 처음에는 과연 사람들이 우리 환경 토크 콘서트에 큰 관심을 가져주실까?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덕분에 우리가 정해놨던 인원과 함께 환경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었고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궁금증인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에 대한 답변 또한 들을 수 있었다.

[개인 소감] 그레이스 카페 사업, 서울대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환경 토크콘서트까지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열정과 끈기가 우리 팀과 나 자신을 성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는 내가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나 자신조차 모르고 있는 느낌이 들어 혼란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팀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의한 끝에 우리 팀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아 환경 인식 개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룰 수 있었던 거 같다. 기회가 된다면 단기적 프로젝트에서 장기적 프로젝트로 거듭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또 한 번의 도전을 해보고 싶다.

박수현

[활동 평가] 1월에는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이라는 주제로 환경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리유저블 컵 대여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프로젝트를 새로이 준비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양질의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 강연자님을 섭외할 수 있을까?' 등 여러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치,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지구마을방법대의 협력으로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더불어, 준비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행사진행 역시 성공적이었다. 환경분야에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강연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실천 방안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강연이 끝난 후 '그동안 환경을 위해 해온 노력들이 허탈하지 않았다는 걸, 유의미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었는데, 관객분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동기와 용기를 드린 것 같아 뿌듯했다.

[개인소감]

토크콘서트는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다. 강연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환경에 대한 외침이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시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팁들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질문해주시는 관객분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관심을 행동으로 확장시켜나갈 창구나 담론의 장이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다운

[활동 평가] 1월 움은 지구마을방범대와 함께 토크콘서트 개최에 박차를 가했다. 강사 및 장소를 섭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기획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토크 콘서트를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방안을 고안했다. 최종 보고회 및 움의 자체 행사와 겹쳐 해야할 일이 많았지만 다들 노력했던 것이 실현된다는 생각에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임했다.

[개인 소감] 평소에도 토크콘서트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기획하고 개최하게 되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퀴즈를 내며 실제로 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도와주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설명해주며 지난 6개월간 움이 노력해온 모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 토크 콘서트는 움의 행적들을 정리해주는 동시에 토크 콘서트에서 얻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환경 실천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해주었다.

이유림

[활동 평가] 우리의 마지막 활동으로서 지구마을방범대 팀과 연합하여 라온아띠 환경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기획팀에서 일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 방식을 결정했는데,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추진하는 행사임에도 의견교류가 원활하여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시도였고, 적지 않은 사람이 응답해주었던 시간이었다. '영향력' 차원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활동이었다고 보는 바이다.

[개인 소감]

토크콘서트는 6개월의 땀박질을 마무리하기에 참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하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는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나.'하는 것이었다. 홍다경, 송경호 두 강연자의 말씀을 듣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받은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미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말해주는 이 일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었다. 배움의 향연 속에서 참 행복했던 한 달이다.

황성윤

[활동 평가] 큰 프로젝트 2개 (서울대 리유저블 컵 대여 프로젝트, 카페 그레이스 리유저블 컵 대여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한 움의 최종 프로젝트인 '토크콘서트' 준비는 순조로웠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역할을 분배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그동안 직접 부딪쳐가며 배운 게 많아서인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특히나 처음으로 다른 팀 '지구마을방범대'와 협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낸 덕에 행사 준비가 즐거웠다. 이 환경 토크콘서트가 움의 성장을 잘 드러내주면서도 마무리 활동으로 가장 적합한 행사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로 1월 30일 진행된 환경 토크콘서트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는 25명의 관객분들과 함께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최종 활동까지 무사히 마무리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달이었다.

[개인 소감] 이렇게 큰 행사를 기획해보고 진행해보며 직접 참여하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였음에도, 꼼꼼히 준비한 덕에 행사가 무탈히 성료될 수 있었다. 10명에서 결코 여유롭지 않은 시간과 예산 내로 준비한 프로젝트였지만, 그럼에도 좋은 퀄리티로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다. 라온아띠에 지원하면서부터 목표로 삼았던 '우리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조금의 영향력이라도 미치자'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었던 행사가 토크콘서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환경'을 주제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음에,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움이 있었음에 아주 감사하다.